

## 전통 상가가 줄지어 있는 마스다의 역사적 거리

역사적인 상가가 즐비한 마스다의 한 구획은 이 도시가 옛날부터 상인이 왕래하던 거점으로서 번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스다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강설량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7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역사는 본채 안쪽에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우치구라’라고 불리는 큰 흙벽 창고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창고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의 큰길에 세워지는 상가 대부분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가옥 대부분은 몇 세대나 걸쳐 상인 가문에 의해 이어졌으며, 현재도 개인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스다가 경제의 중심지로서 성공한 큰 요인은 미나세 강과 나루세 강의 합류 지점, 오야스 가도와 데구라 가도의 교차 지점이라는 좋은 입지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2개의 강을 통해 효율적으로 물자를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개의 가도를 통해 사람들은 마스다를 경유하여 센다이번, 더 나아가 에도(현재 도쿄)에 갈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초반쯤부터 번성하기 시작한 마스다는 19세기 후반에는 아키타에서도 손꼽히는 잎담배와 비단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자 근교 요시노에서 대규모 광상(鑛床)이 발견되어 마스다는 탄광 노동자들 약 9,000 명으로 붐볐고, 경기는 더욱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 마스다의 아침 시장

교역, 상업의 요충지가 된 마스다의 역사는 1643년 아침 시장의 탄생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스다가 주요 하천과 가도에 인접해 있어 지리적 장점을 인정한 번주가 아침 시장을 공식적으로 허가한 것입니다. 아침 시장은 현지 농작물이나 생활용품을 파는 곳이었지만, 최신 정보나 장사에 관한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성기 때는 하루 간격으로 아침 시장이 열렸고 거리 양쪽에 몇천 곳이나 되는 노점이 즐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후 경제 상황과 구매 층의 수요도 바뀌면서 아침 시장은 소규모로 변해 갔지만, 지금도 매월 2, 5, 9가 들어가는 날에 장이 열립니다.

## 맞배지붕으로 된 상가

마스다마치의 중심부에 있는 나카나노카마치도리에는 지붕이 특징인 가옥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경사면이 큰길과 수직 방향으로 된 맞배지붕입니다. 지붕에 쌓인 눈이 정면 입구 쪽에 떨어지지 않도록 고안된 건축 양식으로, 눈이 많이 쌓이는 지역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저택에는 집의 깊이에 따라

설치된 길쭉한 도리도마(흙바닥으로 된 복도)가 있으며, 우치구라라고 불리는 큰 실내 창고로 이어집니다. 그 끝에는 작은 정원으로 통하는 문과 야외의 흙벽 창고(외부 창고), 뒷문이 있습니다. 저택 대부분은 정면의 폭이 거의 균일하며 깊이는 약 100m입니다. 이러한 길쭉한 건물이 줄지어 있는 풍경이 마스다 역사 지구의 특징입니다. 1975년에 역사적인 건축물이나 거리를 보존하자는 활동이 일본 전국에서 시작되었고, 2013년에는 국가의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